

열암 박종홍 박사의 학문적 위상과 위업의 계승

박 종 현 | 성균관대 명예교수

1. 한 시대의 사상적 거목, 그 상징성

흔히 거목이라고 하면, 은행나무도 그런 나무이기는 하지만, 그 보다는 으레 동네 어귀에 버티고 서서 풍부한 그늘을 제공하며 정자 구실까지 해 내는 느티나무를 대뜸 연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일 것이다. 1973년 3월 17일, 우리는 이 나라 사상계에서 오래도록 거목 구실을 해 오던 열암 박종홍 박사를 잃었다. 그 동안 그가 베풀었던 풍부하고 시원한 학문적 그늘을 찾아 그가 속해 있던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까지, 그의 문하로 찾아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들이 저마다 그에게서 받은 씨앗들을 품고 스스로 성장해 갈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이 나라의 한 사상사적 전기이기는 했지만, 그가 제공하는 그늘이 더 한층 풍성해져 더 오래 제공되지 못한 것은 여전히 크게 아쉬운 일로 남아 있다. 향년 일흔 셋은 보통 사람에게는 그리 짧은 일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열암이 꼭 이루려 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몇 년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이는 것이 어찌 나만의 심경이랴!

현대 한국 철학사에 있어서 열암의 위상은 정작 어떤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회랍 철학사의 소크라테스가 차지했던 위상과 비슷한 게 아닐까 싶다. 회랍 철학사는 소

크라테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은 이른바 자연(physis)철학으로 불린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연에 있어서 근원적인 것에 대한 탐구가 맞이하게 된 한계를 말하면서, 동시에 자기 시대의 소피스트들 사이에 만연한 회의론의 극복을 위해서 인식론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이성(logos)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철학적 작업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일로 소일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이성의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자각과 작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하는 '공동 탐구'에 임하도록 부지런히 일터로 불러내다가, 결국 사형까지 당했다. 그의 철학적 작업은 비록 스스로 마무리짓지는 못한 미완성의 것이긴 했지만, 다행히 플라톤이라는 제자를 만나 그 연장선상에서 엄청나게 확대 전개되었다.

열암의 경우에도 상황의 유사성이 발견될 수 있다. 열암 이전 및 동시대의 우리 철학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대체로 유학과 불교 철학이 주류를 이루어 오다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서양 철학의 여러 갈래가 도입되었고, 이들 분야와 관련된 탐구는 대개 빨빨이 흩어진 상태로 진행되어 있었다. 열암은 이것들을 자기 나름의 철학체계 속에 아우르는 작업에 매달리며, 이 일이야말로 우리 모

두의 일이라고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유달리 강조했다. 이러한 아우르는 철학적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작업을 하기에 한국적 상황이야말로 그 일터가 될 수 있고, 한국인들이야말로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려 애썼다. 그의 사후 우리 철학계의 상황은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바야흐로 업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기에, 이들 성과를 아우르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지만, 언젠가 또 다른 차원의 아우르는 작업들이 후학들에 의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 날을 맞게 된다면, 그가 혼자서라도 이룩하려던 위업은 마침내 우리 시대의 여러 일꾼에 의해서 계승되는 셈이 되니, 그는 확실히 우리 시대의 선구자요, 귀감이다.

2. 열암의 학문과 미완의 이론체계

열암의 글은 1998년 3월에 증보판으로 민음사에서 나온 일곱 권의 전집 속에 다 수록되어 있다. 1권에는 1945년 이전의 초기 논문들(조선 미술의 사적 고찰, 퇴계의 교육 사상 및 철학적 소론 22편 등)이, 2권에는 철학개론 강의, 철학 개설 및 18편의 철학 논고가, 3권에는 그가 구상했던 논리체계에 속하는 일반 논리학, 인식 논리학, 변증법적 논리 및 부정(否定)에 관한 연구가, 4권에는 한국사상 연구에 관한 서론적인 구상, 한국의 철학, 그리고 불교 사상과 관련된 논문들 10편, 유학 사상과 관련된 논문들 21편이, 5권에는 한국의 근대 사상편으로 묶인 19편의 논문과 한국철학사상 논고 13편, 그리고 한국 사상과 관련된 영문 논문 12편이, 6권에는 철학적 수상들 93편이, 7권에는 일기 및 기행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방대한 내용들을 개괄적인 형태로라도 전체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의 철학사상을 다룰 경우는, 그 열쇠 구실

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 대한 철학적 관심과 '창조'의 이론이다. 그래서 1998년에 열암기념사업회가 열암 박종홍 철학과 관련된 논고들을 모아서 엮어낸 최초의 논문집 제목도 '현실과 창조'이다. 이 기념사업회가 계속해서 엮어낸 논문집의 제목도 이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권수만 달리 매겨져 나올 것이다. 이것은 열암의 학문적 관심의 핵심이 바로 현실과 창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을 통한 열암 철학에 대한 조명도 이러한 시각에서 하는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모든 철학자는 그 나름대로 어떠한 문제 의식이 있어서 철학을 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절실한 마음으로 거기에 매달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발단이 되어 철학을 하게 된 경우가 오히려 많을 것 같기 때문이다. 아닌게 아니라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철학의 발단을 '경이함(thaumazein)'에서 찾았다. 그러나 열암의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로 하여금 철학에 매달리게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30대 초반의 그의 논문들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그는 "철학하는 것의 출발점에 관한 한 의문"이라는 글(1934)에서 '철학하는 것'의 출발점은 '이 시대의, 이 사회의, 이 땅의 이 현실적 존재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면서 '현실적 기반을 떠나 출발점을 찾는 철학은 결국 그 시대, 그 사회에 대하여 하등의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학 자체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가 곤란하지나 않을까'라고 결론 짓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글에서 그는 자신이 말하는 '현실적 존재'란 '실천적인 제일차적 근원적 존재'를 의미한다고 못박고 있다. 해방 이전의 한 일간지에 게재된 <나의 관심사>라는 글에서도 '나의 출발점'이요, 귀착점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현실적 존재의 파악으로 나의 관심은 어느 때나 집중된다'고 밝히고 있다. 1939년에 발표된 <현실과

악)이라는 글에서는 '출발점의 현실이 부정적으로 깨
되어 그 귀착점에 있어서 혁신 창조된 새로운 면모를 가
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 현실 파악의 길이다 ... 현실 파
악의 길! 그것은 일상적 현실이 구체적 실천을 매개로 자
각하는 과정이요, 문화의 창조를 위한 투쟁이요, 국가의
건설을 위한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초기의 글들을
통해서도 열암의 주된 철학적 관심사가 무엇인 지는 확
연히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열암의 철학적 관심사가 본격적인 저술 형태로
나타난 것이 1948년에 나온 『일반 논리학』과 1953년에
나온 『인식 논리학』, 그리고 1954년에 나온 『철학 개설』
이다. 열암 자신의 최초 저술인 『일반 논리학』이 학계의
각별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 끝에 '창조의 논리에 대
한 예비적 시고'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1959년 말에 나
온 『철학적 모색』의 머리말에서 그 동안의 저술들 및 앞
으로 이어질 저술들과 관련해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
다. '나는 나의 최초의 저술이라고 할 『일반 논리학』 끝
장에서 '창조의 논리에 대한 예비적 시고'를 제기하였
다. 그 당시에도 나의 소망이 쉽사리 성취되기 힘들 것이
라는 것을 짐작 못한 바 아니었기에 예비적이거나 시고
(試效)라고 한 것이거니와, 그런 만큼 기초적인 이론부
터 하나씩 공부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인식 논리도 변
증법적 논리도 내지 역학(易學)의 논리도 나에게 있어
서는 창조의 논리를 천명하기 위한 예비학에 불과한 것
이다. 철학하는 나로서의 필생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건설의 이론' 좀 더 철학적으로 따져 '창조의 논리'를
밝히는 데 있다 ... 서양 철학을 배우려고 하며 우리의 사
상을 알려고 함도 그 모두가 나에게 있어서는 다름 아닌
자기의 문제에 대한 어떤 시사를 회구하는 마음에서 하
는 일이다. 이러한 태도로서 철학의 전반적인 윤곽을 다
루어 본 것이 내가 왕년에 내놓은 『철학 개설』이기도 하
였다.'

열암은 <창조의 논리에 대한 예비적 시고>를 세상에

내놓음으로서 일단 그 개략적인 열개를 선보인 다음, 이
후의 작업들이 장차 완결 짓고자 하는 자신의 '창조의 논
리'를 구축하는 예비적 작업이라는 선언을 한 셈이다. 그
런데 '창조의 논리'를 이론적으로 체계 있게 구축하리
면, 선행되어야 할 작업들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을 그는 세 가지로 본 것 같다. 첫째, 창조의 기반인
'현실'의 파악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철학사 전체를 통해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는 일이
요, 둘째, 창조의 논리에 대한 어떤 시사를 줄 수 있는 논
리적 이론들에 대한 검토다. 셋째, 실제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알아야만 그 논리도 밝혀질 것이기에,
먼저 창조적 사실들 자체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첫번째 작업과 관련된 최초의 큰 결실이 『철학 개설』
이었다. 이 책의 특색은 세계의 철학사를 '현실 파악의
두 방향', 즉 '향내(向內)' 및 '향외(向外)'의 두 방향
에 의해서 분류하고 있는 것과 한국 사상가들을 정식으
로 철학사에 편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각
분야의 새로운 철학적 경향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과거
우리 나라의 철학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이 나라의 대학 강단에서는 처
음으로 <한국 철학사>를 강의하기에 이르렀다.

두번째 작업으로 그는 『인식 논리학』을 피난 시절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놓았다. 그러나 그 후속 작업들 중의
일부인 '변증법적 논리'는 끝 부분이 미완성인 상태로
남겨진 것을 유고간행위원회가 간행했고, 『역학의 논리』
는 전혀 착수되지도 못하고 말았는데, 이와 관련된 그의
구상은 중용과 관련된 다른 언급들에서나마 더듬어 볼
수 있을 뿐이다. 1965년에 쓴 『중용사상』이라는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젊어서부
터 『중용』은 유교 철학의 개론이요, 『주역』의 경문(經
文)은 그 각론이요, 십익(十翼)은 그에 대한 해설이라
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역』은 중용 사상을 여러
경우에 있어서 전개시킨 것, 그리고 그것의 철학적 해명

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주역』은 중용 사상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요, 또 동양의 중용 사상을 알려면 『주역』을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은 『중용』에 대한 흥미가 그대로 『주역』을 공부하고 싶게 된 동기를 마련해 주었다. 나는 그래서 동양 유교 철학의 골자가 중용 사상에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한국의 유학 사상만 정리되면, 곧 『역학의 논리』에 착수할 거라고 다짐하던 그에게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세계 작업과 관련해서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꼭 짚어서 말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아마도 동서 고금의 여러 가지 창조적 사례에 대한 접점이 그런 작업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그가 말년에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던 복합적인 이유들 중의 하나는 바로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물론 집권 엘리트들을 포함한 국민의 도덕적 교화도 큰 관심거리였던 게 분명한 일이지만, '새 역사 창조'의 최고 핵심부에서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참여한 '국민 교육 현장' 정신의 보급 및 교육을 위한 하나의 책자를 『새 역사 창조』라는 제목으로 당시에 집필할 예정에 있었는데, 메모 형태로 남겨진 그 목차는 다음의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역사적 사명, (2) 역사 창조의 시간적 구조, (3) 창조의 시대들, (4) 창조와 슬기, (5) 신념에 뒷받침된 수련, (6) 우렁찬 여명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창조의 논리에 대한 예비적 시고> 자체의 내용과 관련된 언급일 것 같다. 그는 이 예비적 시고에서 먼저 '창조의 성질'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창조는 물론 기존적 형식이나 제약으로부터의 이탈 배반이요, 혁신적 성격을 가진 질적 비약이다 ... 공상이 아니요, 바로 현실에 있어서의 구상적(具象的) 형성이며 우발적이 아니요, 가장 계획적인 실현을 수행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것의 객관적인 형식과 구조를 밝히는

논리가 필요한 것이다 ... 창조는 단지 정신적인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객체의 구형(構形)에까지 도달하여야 되는 것이요, 따라서 창조의 논리는 관념적·실제적이며 주체적·객체적인 것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창조는 엄연한 필연적 법칙의 제약 밑에서 우리의 사회, 국가, 민족 내지 전 인류의 요청으로서 일정한 목적을 현실적으로 구상화하는 실천이다. 이미 주어진 소재를 일정한 목적적 전지에서 채택하여 하나의 구상적 형태로서의 새로운 질(質)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 창조는 양적 발전이 아니요, 질적 비약의 과정이며, 기존 형식의 전통적 질곡을 타파·지양하려는 혁신적 비약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인 것을 그저 부정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否定)을 매개로 하여 근원적으로 전통이 지향하는 바 종국적 목표를 다시 긍정하는 과정이요, 발전적으로 살려서 계승하는 실천이다.'

이어서 그는 '창조의 일반적 구조'의 항목에서 (1) 소재, (2) 목적, (3) 소재의 분석과 선택, (4) 구형이라는 소항목들을 다룬 다음, '창조의 제상(諸相)'이라는 항목에서는 (1) 과정에 있어서 본 분류 (a) 목적 선행의 창조, b) 소재 선행의 창조, (2) 대상으로서 본 분류 (a) 기술, b) 정책이라는 소항목들로 이를 다루고 있다. 특히 '정책'의 소항목에서는 '창조가 사회를 대상으로 할 때에 정책으로 나타난다. 자연에 대한 기술이 자연과학을 기초로 하는 데 반하여 사회에 대한 기술로서의 정책은 사회과학을 기초로 한다. 총 계획적 목적에 입각하는 사회기술로서의 정책에 의하여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기술이 통제되며 계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책은 제(諸)기술 간의 정당한 연관을 수립하는 총 계획적 기술이다. 이러한 정책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동시에 윤리적이어야 한다. 정책은 특히 사회, 국가, 민족 내지 전 인류의 입장에서 그 목적을 확립함에 있어서 성실하며 양심적이어야 할 것이요, 그렇지 못할 때에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는 획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다시 없는 죄과를 사회, 국가, 민족 내지 전 인류에 대하여 범하게 될 것이다. 기술은 그 고유의 본질상 전 인류의 것이다 ... 이 점에 있어서 정책과 기술은 상호 제약의 관계를 떠날 수 없다 ... 정책도 역시 사회 조직 내지 제도라는 구체적 형태를 새로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인간 형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물을 새로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인간 형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정책은 우월한 의미에 있어서 사회적이요, 그의 인간 형성은 곧 사회적 인간의 형성이다 사회는 그 조직 내지 제도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의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주면서 진전하고 있는 하나의 주체인 것이다 ... 사회는 그 자신 창조적인 사회요, 우리는 그 주체적인 사회의 창조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새로운 사회적 인간 형태의 형성, 새로운 민족의 창조, 여기에 우리는 신생의 서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열암이 45세였던 시기에 출간된 이 책에서 우리는 '창조의 논리'와 관련된 그의 당당하고 열정에 찬 패기와 원대한 포부를 읽게 된다. 향후 28년 간 그는 자나깨나 이 포부를 실현하는 작업에 매달리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

지 못한 채로 거의 고립무원의 시대적 상황에서 혼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느라 많은 세월을 보내 버렸다. 그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한국 사상을 비롯해서 동서 사상에 두루 걸쳐서 많은 연구 업적이 이미 나와 있었던들 열암은 능히 자신의 '창조 이론'을 불품 있는 하나의 저술로 완성해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나만의 상념은 아닐 것이다. 

박종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아테네 대학 및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하였고, 1972년부터 2000년 2월까지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한국 서양고전학회장을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성균관대 명예 교수로 재직중이다. 1983년 열암 학술상 수상, 1999년 플라톤 원전에 대한 역주로 성균가족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저서로는 「희랍 사상의 이해」, 「플라톤」(편저)가 있으며, 역주서로 플라톤의 「국가」, 「티마이오」, 번역서로 「소크라테스의 최후」, 「희랍 철학 입문」이 있다.